



**2층** 전통문화  
자연·지리·예술·음식 등 자료 1000점

**1층** 광주의 역사  
고대~최근 7개 소주제 자료 1200점

# 광주민속박물관 리모델링 ... 역사·전통문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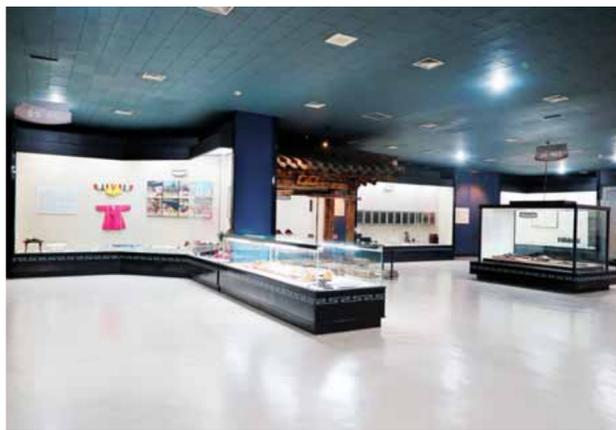
내년부터 94억원 투입  
2018년 재개관 예정  
예향·맛 등 광주 대표 이미지  
알리는 공간으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 광주 역사와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민속박물관이 최근 공개한 '시립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및 광주역사 전시공간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94억원(국비 38억원·시비 56억원)을 투입, 기존 상설전시실 1층은 광주역사, 2층은 전통문화 전시실로 전환해 2018년 재개관할 예정이다. 기획전시실은 그대로 유지한다. 1987년 11월 개관한 민속박물관은 그동안 전시시설 노후화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 1층은 의식주 관련, 2층에는 세시풍속 등에 관한 유물 약 3000점이 전시되고 있다. 주로 19세기 말~20세기 초, 종류 농가를 중심으로 전시실이 꾸며졌다. 이와 관련해 운영한 광주시장은 지난 3월 리모델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층(1230㎡)은 1200점의 자료를 7개의 소주제로 나눠 광주의 역사를 고대부터 최근까지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주제 '시간과 공간의 문'에서는



광주 역사와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18년 재개관 예정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광주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두번째 '마한의 시대'에서는 마한~삼국시대를 다룬다. 세번째 주제 '견훤의 땅·전설의 땅'에서는 견훤대, 방목평 등 삼국시대 유적과 삼국유사 등 설화를 선보인다. 고려 태조 때 처음 광주라는 지명이 사용된 사실을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네번째 '이로운 정신의 뿌리'와 다섯번째 '기울어가는 나라에서'는 광주읍성 등 15~16세기 사립의 맛과 의병들의 의기를 보여준대 이어 동학농민운동, 구한말의병운동, 국제보상운동 등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시대로 꾸며진다.

여섯번째 '어둠의 심연에서 : 민중운동'에서는 일제강점기 광주 시대상을 볼 수 있다. 3·1운동, 학생독립운동, 지역출신 해외독립운동가 등 독립을 향한 지역민의 의지로 전시실을 채웠다. 당시에도 변화가 있던 총장로, 서양문화와 접촉한 양림동, 철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송정리 등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일곱번째 주제는 '한국민주화의 빛 : 5·18'이다. 광복과 전쟁 등으로 갈등과 아픔을 겪은 격동기 광주를 소개하고 5·18의 배경, 전개과정, 의의 등을 다룬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지역의 모습

을 끝으로 전시를 마무리한다.

광주역사 전시실은 선사·고대사에 초점을 맞춘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와 겹치지 않게 역사적 정체성이 뚜렷이 확립된 조선시대부터 5·18 등 현대사까지를 중점 조명할 예정이다. 또 의향 광주에 초점을 맞춰 의병·동학·항일·민주화운동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2층(1460㎡)은 1000점의 자료를 이용해 5개 소주제로 구성한다. 첫번째 '광주의 자연과 삶'에서는 호남 문화의 특징, 지리 등을 알려준다.

두번째 '양반문화', 세번째 '중인문화', 네번째 '서민문화'는 16~20세기를 시대별로 나눠 각 계층별 생활과 예술,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섯번째 '음식, 예술 그리고 정'에서는 광주의 전통 문화와 삶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박물관측은 승강기 등을 정비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에 있던 뮤지엄숍도 확장 시킬 계획이다. 또 노후 기와교체, 도색 등 외관도 정비한다.

2016년 예산확보·설계 등을 거쳐 2017년 본격 공사가 시작되며 공사 기간은 휴관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에는 역사나 도시변천, 문화 등을 소개해주는 박물관이 없었다"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에게 예향이나 맛 등 대표적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100세 시대 남도의 얼굴

사진작가 강봉규 팔순 기념전



강봉규 작 '자애로운 그날'



김진정 작 '희수의 행복'

연말까지 담양 명지미술관  
제자 등 27명도 참여

지난 50년간 남도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강봉규 사진작가의 팔순 기념전이 담양 명지미술관에서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100세 시대의 얼굴'을 주제로 강 작가의 작품 10점을 비롯해 제자들로 구성된 '21 빛모임', 명지사 진연구회, 명지아카데미 회원 등 27명의 작품 총 66점을 선보인다.

전시주제는 팔순을 맞은 강 작가에 대한 제자들의 헌사를 담았다. 주로 남도 지역 장수마을의 70세 이상 노인들과 고목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농촌을 배경으로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을 클로즈업(Close up)한 작품들은 그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나온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은 아니다.

강 작가의 작품 '어느날 오후'에서는 담배락 밑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할머니를 피사체로 잡았고 '세월'은 무

연가를 열심히 바라보는 할아버지들이 등장한다. 이들 노인들의 표정은 고단함보다는 지혜와 열정을 느껴지고 더 나아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강 작가는 "그동안 사진에 삶을 농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항상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며 "예술가들은 나이가 들면서 완속해지는 만큼 힘이 다할 때까지 활동을 해 좋은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빛모임 김진정 회장은 "강 선생님은 적지 않은 연세에도 열정 넘치는 예술혼을 불태우시는 모습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제자들에게 더욱 안목 높은 사진인의 시각 자세를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산 출신인 강씨는 1959~1980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사진부장, 월간잡지 '사람 사는 이야기' 편집장, 광주비엔날레 초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현재는 담양 명지미술관을 운영하며 작품활동 및 후학 양성을 하고 있다. 문의 061-383-257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26기 강좌 열린다

깊어 가는 가을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26기 강좌를 연다. 내달 6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 중문학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세대공감인문학' 시간으로 4명의 교수들이 강의 한다. 이영란(중문학), 박주희(교육철학), 최장근(국문학), 명혜영(일문학) 교수가 시민소통 프로젝트의 하나로 각기 '황제', '행복', '자유', '평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이영란 교수가 '중국역사 속

다음 달 6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의 여인, 여인들'을 매개로 중국문화를 탐구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론스터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지금, 여기,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와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후두가

기인형, 박취'를 주제로 강의와 감상이 이어진다.

SEMI강좌(토·일 오후 7시)는 '오타쿠 위러의 무비토크 명화여 다시 한 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 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 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프리덤**  
 FREEDOM  
 아카데미상상식 남우조연상 <셀마> <레리 맥과이어>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샤론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